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직접 다가가서 도와 드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봉사활동 현장에 나가서 목욕이나, 가정방문 등을 하면 냄새도 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싫다는 느낌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듭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다면, 너무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내 생각만 하는 걸까'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방송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면 제가 그 상황을 직접 겪은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정 이입이 되다보면 마치 제가 그런 상황들

나 자신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도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한 질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세속적이든, 정신적이든 충분히 누리시고,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Q 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가족들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다른 가족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땅히 폭력을 행사했다고 근거가 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협에 너무 노출돼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극단적

사회복지학 전공자면서 봉사 나가면 싫은 느낌뿐이예요 마음 충족돼야 다른 이를 위해 에너지 쏟을 수 있어요

겪게 될 것 같아 꺼려집니다. 또 나만 즐겁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마치 죄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이러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생각,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 갈등이 있으신군요. 내담자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잘 아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부정적인 에너지로 쓰여 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애정과, 정의감이 있는 내담자께서는 전공 선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조금 유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불자는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 지혜를 갖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생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숙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담자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한 갈등을 이러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과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충족돼야 다른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인 위협에 처해질지 몰라 가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오디디푸스 콤플렉스가 심하며 사이코패스 기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누구에게도 도움 받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 저와 제 가족이 위협에 처해질지 몰라 두렵습니다.

A 가족전체가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증거물도 없는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은 더욱 가족들을 힘들게 해 건디기가 힘들 겁니다. 내담자께서는 가해자 가족들을 깊은 병리로 보셨는데, 그러한 가족들의 시선이 어찌하면 그분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더욱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겠지요.

일단 내담자께서는 병리적이고 생각되는 그 가족과 다른 가족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를 하십시오. 정성껏 기도를 하다 보면 내담자께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고, 그 기운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자문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정신상담사이버 상담팀 아하박스 www.ahaxbo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임실불교 활성화 우리가 책임져요

희망법당 탐방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7월 4일. 울창한 숲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
"김상병, 지난주에 감기로 고생하던니 몸은 어땠는가?"
"덕분에 금방 나았습니다."
"박일병 어머니가 편찮으시던데 지금은 어떠신가?"
"어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 휴가 가서 뵙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교육과 예비군 훈련 준비 등으로 불자장병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그 열기는 법당을 가득 메우고 넘친다.

매주 일요 정기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삼삼오오 법당으로 모이는 병사들에게 이성강 포교사와 이래훈 포교사가 반갑게 맞으며 인사를 나눈다. 두 포교사는 웃는 얼굴로 병사들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정을 듬뿍 담아 병사들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다.

호국 장영사는 탄약을 보관하고 다루는 부대에 위치해 특성상 부대 부지도 넓으며 민가와도 많이 떨어져 있다. 때문에 장병들과 지역불자들이 법당을 찾으려면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종교보다 월등히 많은 장병들이 법당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처럼 포교사들과 불자 지휘관들이 가족과 같이 상담하며 장병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하는 노력 때문일 것이다.

제6탄약창(장장 안순현 대령)에 법당이 들어선 것은 1986년의 일이다. 당시 부대 내에 있는 허술한 창고를 법당으로 개조해 일부 병사들이 법회를 봤다고 한다.

그러던 2004년 포교원장이었던 원주 송광사 도영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찰 스님들과 부대 지휘관, 재가불자들의 후원으로 위병소 옆에 50평 규모의 현 법당이 마련됐다.

12년간 제6탄약창에서 매주 빠짐없이 법회를 진행하며 2004년 호국 장영사 건립 등을 지켜본 이성강 포교사는 "호국 장영사 건립 이후 부대 내 포교뿐만 아니라 임실불교가 활성화 됐다"고 말했다.

호국 장영사 법당에 나오는 병사들은 계급의 상관관계보다는 모두가 형제나 삼촌같은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모두가 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선배들의 군 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여

간식에 끌려 참석하던 법회가 마음의 안식처 역할 특특
계급 떠난 솔직 대화로 군생활에 도움... 부대도 지원 팍팍

자 친구 이야기, 가정사 등을 스스럼없이 털어놓는다. 불자 장병들은 모두 자연스레 군 생활에 충실해진다고 말한다. 이날도 장병들은 근무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오랜만에 만난 법우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에 정신이 없었다.

김영관 상병(제2탄약중대)은 "처음에는 간식을 준다든 말에 법당에 나오게 됐다. 하지만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며 "특히 찬불가를 부를 때면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전역을 하루 앞둔 이재승 병장은 "군 생활동안 불교는 큰 힘이 됐다"며 "복합하게 되면 대ભ론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도 고향 마산에서 매주 간식을 준비해 군 법당에 간다. 보살님을 뵈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이창환 대위(제2탄약중대)는 "법당에서 장병들이 계급을 떠나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도 법당이 모범적인 군 생활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부대 내에서도 호국 장영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맨스대회, 장기자랑과 연등축제에 열렸으며 입상한 장병들에게 포상휴가 등이 내려졌다. 5월에는 불자장병들의 수계식을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하고 부처님오신날 불자장병들이 완주 송광사에서 불족 범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도 제공했다.

이날 일요정기법회에서도 교리퀴즈대회가 열렸다. 그동안 천안함 사태로 장병들이 심리가 위축된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부대 차원의 배려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교리퀴즈대회는 25일 부대의 전 장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불자 장병들을 대상으로 본 무대를 앞두고 문제 수준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머물러 계실 때의 이름은?"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는 8가지 수행 덕목은?"

교리퀴즈를 맞추는 병사에게는 미리 준비한 푸짐한 간식이 주어졌다. 호국 장영사에 나오는 불자 병사들의 교리 수준은 깜짝 놀랄 정도로 뛰어났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완주 송광사에서 열린 교리퀴즈대회에서는 김상병 상병과 김진성 상병이 일반불자들을 물리치고 1등과 2등을 차지했다. 그 때 부상으로 받은 액자는 장영사 법당에 걸려있어 장병들의 귀감이 되고 있을 정도다.

이성강 포교사는 "타 종교보다 월등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군 법당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포교사는 "병사들 떡을 해주며 공양미를 내어 주시는 스님들과 자장면을 보시해주시는 스님, 떡볶이 등 병사들 간식을 준비하는 원주 위병사, 송광사 불자님들, 행사 때마다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부대 지휘관들에게 감사의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퀴즈에 일회일비하며 환호하는 병사들의 뒤로 군포교 활성화의 서풍이 비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0. 7. 17(토) 오후 1시부터 ~ 7. 18(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5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Content. Rows include Basic Course (37 weeks), Intermediate Course (37 weeks), Practice (1 year), and Special Practice (1 year).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금)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